

헛개나무 1년생 조림목의 멀칭처리에 따른 성장 특성

최충호

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

Effects of Mulching on the Growth of 1 year of *Hovenia dulcis* seedlings

Chung Ho Choi

(Gyeonggido Forest Environment Research Center)

초록

본 연구는 헛개나무 1-0년생 묘목을 식재 후 멀칭처리가 묘목의 성장특성에 끼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 묘고(H), 근원경(D), H/D율, 가지수, 잎수, 잎 길이, 잎 폭 등의 인자를 조사하였다. 묘목의 묘고는 대조구 62.67cm, 처리구 62.37cm로 유사하였으나 근원경의 경우 대조구 9.3cm에 비해 처리구 11.90cm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. 그에 따른 H/D율은 대조구 6.72 처리구 5.24로 나타났다. 묘목에 달린 가지의 개수는 대조구와 처리구 모두 평균 3~4개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잎이 달린 개수는 대조구 39개에 비해 처리구는 56개로 높게 나타났다.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멀칭 처리의 효과는 빠른 시기부터 풀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수분 손실을 방지하여 조림목의 직경생장, 잎의 생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식재 후 5~10년까지의 어린나무 가꾸기가 조림목의 활착 및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멀칭의 효과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 본 연구 결과는 헛개나무 조림지에서 멀칭 처리를 통해 풀베기 예산 및 노동력을 절감시켜 효율적인 산림경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.

Key words: mulching, seedling, *Hovenia dulcis*

*교신저자 : seedchoi@gg.go.kr